

# '日 군함도 세계유산 약속 파기' 정부, 국제사회에 알린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 분석 결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  
SNS 등 통해 국내외 여론 환기

올 1분기 세계유산위 권고사항  
일본 미이행 사항 비교 영상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역사 왜곡과 관련 일본이 국제권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일본이 지난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일본이 지난달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한국인 등 수많은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문체부, 카드뉴스·홍보영상 제작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일본 서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지난 2017년 8월 13일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료로 잘 알려진 하사미 에이디아가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다. 사진은 군함도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계 누리꾼에게 제공하는 '코리아넷(korea.net)'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전한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기를 바란다"면서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사회 약속을 이행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열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21회 졸업식이 학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만학도 학생들의 빛나는 졸업장

### 전북도립여성중고 졸업식 거행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의 제21회 졸업식이 지난달 29일 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형편 곤란 그리고 병마로 학업의 시기를 놓친 49명의 여성 졸업생들은 누구보다 값진 졸업장을 받게 됐다.

졸업생 49명은 최연소 53세부터 최고령 84세까지, 평균나이 66세의 여성들로 이제 학교 밖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게 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도지사 표창(2명), 도의회 의장상(2명), 교육감상(2명), 학교장상(2명), 동문회장상(2명) 등 10명이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송지웅 전북도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와 만학도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이다"며 "여러분들의 젊음도 꿈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영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이 졸업장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닌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욱 멋진 제2의 인생을 계획했으면 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도서관 디자인' 제시

### 원광대 서형탁씨, 공간디자인대전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분야 '금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서형탁(4년·사진)씨가 제13회 공간디자인대전에서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분야 금상을 받았다.



INTERNI & DECOR Magazine이 주최한 공간디자인대전은 제13회를 맞아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인테리어 프로덕트디자인, 전시·무대디자인, 디스플레이(VMD)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1차 예선과 2차 본선을 거쳐 최근 본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1,1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심사가 지연되고, 최종심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원광대는 지난 11회 공모전 대상 수상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박정주 교수 지도를 받은 서씨는 공모전 주제인 '경계'를 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쓴 고대 문서를 의미하는 'palimpsest'로 해석하고, 전통적인 공간의 기본구조 형식은 유지되면서 변화되는 변종공간 출현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서형탁 '미디어 도서관 디자인'

특히 다양한 미디어들과 IT기술, 정보의 의미 전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도서관 디자인을 제시해 개념의 실체화, 세련된 표현능력, 창의적인 사고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씨는 "코로나19와 IT기술은 기존공간의 개념을 전환시켜 이전과 다른 공간들이 출현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간들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이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과는 이번 공간디자인대전에서 서형탁 학생의 금상 외에도 장려상과 입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열린 제33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에서는 11명의 재학생이 입상하고, 2020 전북도 산업디자인대전에서도 장려상과 특선, 입선에 올랐다. /익산=장영원 기자

## 예술도서 판매 30.4% 급증... 코로나19 여파

### 예스24가 판매량 분석 결과 공개 '방구석미술관' 분야 최다 판매도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술 분야 도서 판매량이 전년도 보다 3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셀러로는 '방구석 미술관' 등 미술 관련 도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예술 분야 도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 결과 예술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18년 11.1%, 2019년 8%, 2020년 1.3%에서 올해 30.4%로 확연히 증가했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예수 분야 베스트셀러 차트를 살펴보면 1~5위가 미술 관련 도서였다.

1·2위는 인기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의 운영자 조원재 작가의 교양 미술서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가 차지했고, 3위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김락희의 인체 드로잉' 4위와 5위에는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도서 '월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미술 365'와 '90일 밤의 미술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90일 밤의 클래식(8위) ▲LP로 듣는 클래식(10위)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이야기(17위) 등 클래식 음악 관련 도서, ▲흔한남매의 흔하지 않은 재즈 소곡집 ▲하늘 60 피아노 교본 ▲피아노 소곡집 1 등 피아노 연주 관련 도서도 다수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뉴시스

### 국립민속국악원 상설공연 공연단체 공모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상설공연 '목요일다' 무대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모집한다.

목요일다라는 전통공연 양식에 예술적 깊이를 더한 21세기형 풍류무대로 기존 국악 애호층과 더불어 새로운 국악 관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공연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전통공연예술 활동이 활발하며 역량을 갖춘 단체(5인 이상)면 가능하며, 민속악, 무용, 창작음악 등 각 분야별 3팀씩 선정해 소정의 출연사예금과 공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3일 누리집을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신청서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kaya0091@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630-620-233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